

# 불지른 불펜...8회 KIA 마운드 '불바다'

### 임준섭 7회까지 무실점 호투

### 8회 4실점...삼성에 1-4 역전패



'호랑이 군단'이 허리 대결에서 밀리며 '사자 군단'에 위닝 시리즈를 내줬다.

KIA 타이거즈가 28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시즌 3차전에서 1-4 역전패를 기록했다.

신에 좌완 임준섭이 7회를 무실점으로 막는 '깜짝 호투'를 선보였지만 불펜의 난조와 8개의 안타로 1점을 만드는데 그친 집중력 부족으로 삼성전 2패를 당했다. 이날 2위 두산이 NC를 3-1로 꺾고 4연승에 성공하면서 KIA와 공동 1위가 됐다.

'명품 커브'의 KIA 김진우와 삼성 윤성환, KIA 양현종과 삼성 로드리게스의 '강속구 싸움'과 달리 KIA 임준섭과 삼성 배영수가 맞붙은 3차전은 타격전이 예상됐다. 그러나 양팀 방망이가 헛돌면서 이번에도 투수전 양상이 됐다.

임준섭이 1회 첫 타자 배영섭을 불넷으로 내보내며 불안한 출발을 했다. 도루실패에 이어 2루수 플라이로 투 아웃을 잡았지만 이번에는 이승엽의 2루타가 나왔다. 불넷으로 2사 1·2루까지 뚫렸지만 5번 진갑용을 3루수 땅볼로 잡아냈다.

간신히 1회를 넘긴 임준섭은 이후 6회까지 안타와 불넷 하나만을 내주는 깔끔한 피칭을 펼쳤다. 7회 1사에서 박한이·김태완의 연속 안타가 나왔지만 이지영과 김상수를 각각 중견수 플라이와 2루수 땅볼로 처리하면서 임준섭의 기록은 7이닝 4피안타 3사구 1탈삼진 무실점이 됐다.

하지만 타선과 불펜의 지원이 따르지 않으면서 승리를 놓쳤다.

3회 차일목이 선두타자로 나와 내야안타로 출루한 뒤 홍재호의 땅볼 때 2루로 향했



민망한 헛스윙 28일 오후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 7회말 2사 만루 KIA 나치원이 삼진 당하고 있다.

다. 이용규가 땅볼로 물러났지만 신중길의 적시타가 터지면서 KIA가 선취점을 얻는데 성공했지만 이날 KIA의 유일한 점수였다.

나치원이 몸에 맞는 볼로 걸어나간 4회에는 최희섭의 병살타가 나왔고, 홍재호의 안타로 만든 5회 1사 1루에서는 이용규와 신중길이 범타로 물러났다.

6회에는 나치완과 최희섭의 연속 안타 이후 김민준의 삼진과 안치홍의 땅볼이 나오면서 역시 점수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홍재호의 안타와 상대 불펜진이 불넷 두 개를 허용하며 만들어진 7회 2사 만루의 찬스에서 나치완의 방망이가 헛돌았다.

득점기회를 잇달아 놓치면서 승기를 잡는데 실패한 KIA는 불펜이 가동된 8회 허무하게 무너졌다.

유동훈이 선두타자 배영섭에 안타를 맞은 등 1사 1루에서 진해수에게 마운드를 넘겨줬다. 좌타자 이승엽과의 승부에서 안타를 내준 진해수는 세 타자 연속 안타로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 박한이를 상대로 스트레이트 불넷을 기록하면서 밀어내기로 1점을 더 내줬다.

1군에 복귀한 박지훈이 수습에 나섰지만 유격수 홍재호가 병살타성 타구를 놓치는 등 KIA는 8회에만 4실점을 하면서 무너졌다.

KIA는 앞선 26일 경기에서도 김진우가 7이닝 1실점의 호투에도 불펜의 난조와 타선의 침묵으로 윤성환에 0-6 완봉패를 당하는 등 허리싸움에서 밀리며 주말 3연전에서 1승2패에 머물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 28일 광주

삼성	0	0	0	0	0	0	0	4	0	-	4
KIA	0	0	1	0	0	0	0	0	0	-	1

투수=안치홍 승, 진해수 패  
결승타=박한이(8회 1사 만루서 밀어내기 4루)

### ■ 프로야구 중간순위 (4월 28일 현재)

팀	경기수	승	패	무	승률	연속
1 KIA	20	13	6	1	0.684	1패
1 두산	20	13	6	1	0.684	4승
3 삼성	20	13	7	0	0.650	1승
3 넥센	20	13	7	0	0.650	1패
5 LG	21	12	9	0	0.571	1승
6 롯데	20	9	10	1	0.474	1패
7 SK	21	9	11	1	0.450	2승
8 한화	21	4	16	1	0.200	2패
9 NC	21	3	17	1	0.150	9패



암벽 오르는 조승운 28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인공암장에서 열린 제25회 광주광역시 전국 스포츠 클라이밍대회가 열린 가운데 남자 일반부 결승전에 출전한 조승운(광주 전지공고)이 오버행을 오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류현진 '불방망이' 콜로라도에 3승 도전

### 5월 1일 오전 11시 10분 추신수는 27일만에 홈런포

원손 투수 류현진(26·사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미국 프로야구 내셔널리그 막강 타선 콜로라도 로키스에 맞서 시즌 3승 달성에 세 번째로 도전한다.

류현진은 5월 1일 오전 11시 10분(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콜로라도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한다.

류현진은 8일 피츠버그와의 일전에서 역사적인 바리크 첫 승리를 신고한 이래 4경기 만에 홈 마운드로 오른다.

그는 그동안 에리조나, 볼티모어, 뉴욕을 돌며 방문 경기에서 메이저리그 적응력을 키워왔다. 13일 에리조나를 상대로 2승째를 달성한 뒤 두 경기에서 승리를 보태지 못한 류현진이 현지 시간으로 4월 마지막 날 열리는 시즌 6번째 등판에서 홈팬에게 승리를 선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류현진과 어깨 매결을 벌일 콜로라도의 투수는 2승 2패, 평균자책점 2.86을 기록한 멕시코 출신 좌완 호르헤 데라 로사다.



한편 '추주 트레인'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가 27일만에 홈런포를 쏘아올렸다.

추신수는 28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스파크에서 계속된 워싱턴 내셔널스와 방문경기에서 솔로홈런 한 방을 포함해 3타수 1안타에 불넷 1개를 끝냈다. 전날 35경기에서 연속 출루 기록이 중단됐던 추신수는 시원한 홈런포로 타격감을 다시 끌어올렸다.

시즌 4호 홈런을 터뜨린 추신수는 타율 0.360을 유지하며 출루율은 0.505로 메이저리그 전체 1위를 지켰다.

## 신축구장 얘기하던 양현종 "어디 축구장?"

### ㉞ 덕아웃 말말말

▲병일 갔다가 늦게 오면 일이 생기더라고요=선동열 감독, 지난 25일 NC와의 경기에서 최희섭이 손목에 공을 맞아 격정을 했는데 병일이 일찍 돌아와서 한숨 돌렸더라. 경기 도중 병원으로 후송된 최희섭은 단순 타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해보고 나서 되지는 안 되지는 말해야죠=26일 손목 부상에도 정상적으로 훈련을 소화한 최희섭, 1루수로 선발 출장할 예정이던 홍재호가 타격연속 도중 정강이 부상을 당하면서 최희섭은 이날 부상 투수로 나섰다.

▲빨리 잊어야죠=25일 NC전에서 9번 타자로 나서 기선을 제압하는 스피런 홈런을 날린 홍재호, 자신의 역할은 홈런타자가 아닌 만큼 장타 욕심은 부리지 않겠다고.

▲말았다고 기다리라고 하더니 병살을 때리시더라고요=25일 4개의 안타를 때려내는 등 타격감이 좋았던 4번 나치완, 무사 1루에서 대타석에 있던 3번 이범호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려고 부타했는데 병살타를 치

고 들어왔다며.

▲카 퍼레이드는 심정이었어요=삼성 유니폼을 입고 처음으로 친정팀을 찾은 신용운, 1군 버스를 타고 광주로 오는 길의 심정이 남달랐다고. 팔꿈치와 어깨 등 세 차례 수술을 받았던 신용운은 극적으로 재활에 성공하면서 27일 2년만에 무등경기장 마운드에 올랐다.

▲어디 축구장?=신축 구장에 관한 얘기를 하던 양현종, 신 축구장으로 들었더니.

▲신축! 구장! =안치홍, 양현종이 말을 못 알아듣자

▲꽃다발 없어요? 주장님 맞아야 하는데 =28일 훈련에 앞서 선수단 미팅을 준비하던 서재용, 주장 김상훈이 손가락 부상으로 재활군에 내려가면서 이범호가 임시 주장이 됐다.

▲갈매기 요즘 왜 안 나오나? =선동열 감독, 삼성 포수 진갑용을 향해.  
▲오늘 나옵니다. 지명타자도 =진갑용, 선동열 감독의 질문에 답하면서.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안치홍 안타·도루 1개에 2만원씩 적립

### 야구 꿈나무들 후원

야구를 통한 안치홍의 사랑 나눔은 계속된다.

안치홍이 지난 27일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앞서 '야구 꿈나무 인재 양성 1안타 1도루 후원 협약'을 가졌다.

야구 꿈나무들을 위한 안치홍의 후원 활동은 신인 시절인 2009년부터 계속되고 있다. 성격에 따라 적립금을 조성했던 안치홍은 올 시즌 후원 폭을 넓혔다. 지난해까지 도루와 안타 1개에 각각 1만원을 적립했지만 올 시즌에는 2만원으로 올려 적립한다.

안치홍은 "팬들의 성원도 많고 올 시즌 연봉도 오른 만큼 그에 대한 보답을 위해 2만원씩 적립하기로 했다. 어려운 환경의 야구 꿈나무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후원 협약은 스스로에게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앞으로도 적립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KIA 안치홍이 지난 27일 무등야구장에서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 김은영본부장(왼쪽), 밝은안과21병원 반태수 원장(오른쪽)과 함께 야구 꿈나무 후원 협약식을 가졌다. <KIA 타이거즈 제공>

한편 안치홍은 지난 시즌 141안타, 20도루를 기록하면서 161만원을 적립했다. 안치홍의 후원 활동에 동참하고 있는 구단 지정병원인 밝은 안과 21병원도 같은 금액을 적립, 322만원을 어린이 재단에 전달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Special "웨딩홀 새단장 기념" 신양 웨딩 이벤트

저희 신양파크호텔에서는 대 고객 감사 이벤트의 일환으로 저희 호텔에서 결혼을 해주신 신랑, 신부님들을 위한 웨딩 멤버십 카드인 신양 허니문 카드를 발급하여 저희 호텔의 평생회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항상 고객만족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약속드리며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객실이용시 40% DC (금토공휴일 전일 30% DC)**  
연회 및 레스토랑 이용시 10% DC  
가족모임(동전차, 교회면 등) 각종 세미나 등(50명 이상 행사 시 헌수막, 케이크 서비스)  
작게 가족 웨딩 시 10% DC 휘트니스 시우나 이용 시 40% DC  
결혼기념일 당 호텔 방문 시 케이크 무료제공 및 레스토랑 이용 시 50% DC (단, 본인외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제과 전품목 20% DC

**봉향연 특선메뉴!**

**양식당 Rosemary**  
소고기 안심과 동심을 동시에 맛볼 수 있는 최고의 부엌 스테이크로 1등급 휘문 안심 스테이크

**중식당 ~ 推(推)**  
중국 명요식 x 오스의 새우요리  
17가지 엄선된 재료로 요리한 황자탕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예약 및 문의 062)228-8000/221-4101~3

**New 멤버십 특별모집! 휘트니스 Gold 멤버십, First class 포시즌 멤버십 신양파크호텔의 품격있는 VIP 로 모십니다.**